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혁남

모두가 공무원·교사 되어야 하나

필자는 어렸을 때 매달 25일을 그리도 기다렸다. 그날은 평소 잘 먹어보지 못하는 생과자를 먹게 되는 행복한 날이기 때문이다. 매달 25일은 평생 공무원이셨던 아버님의 월급날이었다. 월급날만 되면 온 식구들이 밤늦게까지 눈 빠지게 아버님을 기다렸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식들은 아버님이 사오시는 생과자를, 어머님은 아버님의 월급봉투를 기다리셨다.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면 여간 손해가 아니었기에 어떤 때는 밤 12시까지 두 눈을 비벼가면서 기다린 적도 있었다. 어쨌거나 그리도 기다리던 아버님이 오셔서 생과자를 풀어놓으면 5명이나 되는 자식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정신없이 먹어댔다.

그러나 어머님은 누런 월급봉투에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세시고 나서 항시 한숨만 내쉬시고, 멋쩍으신 아버님은 우리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공무원하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데도 우리 5남매 중 필자를 포함하여 3명이 아직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할 수 없는 집안의 팔자라는 생각이 든다.

한 때는 기피직업이었던 공무원이 이제는 선망의 직업이 되었으니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 필자가 지난 4월 전라북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아들과 딸의 선호 직업은 각각 달랐는데 아들의 경우는 공무원이, 딸은 교사가 가장 많았다.

먼저 아들의 경우 공무원이 22.7%로 가장 선호했으며, 이어서 의사가 10.1%로 두 번째, 사업가가 9.9%로 세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교수(9.4%), 외교관(7.6%), 법조인(5.3%), 과학기술자(4.6%), 회사원(4.1%), 교사(3.8%), 언론인(3.0%) 순으로 나타났다.

딸의 경우는 4명 중 1명꼴인 26.6%가 교사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공무원이 15.0%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약사(8.0%), 간호사(6.0%), 은행원(4.0%), 디자이너(4.0%), 교수(3.8%), 외교관(3.5%)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20년 전인 1992년, 그리고 1998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전북도민들은 20년 동안 일편단심 공무원과 교사만을 고집하였는데, 아들의 경우는 20년 동안 오직 공무원만을 선호하였다. 딸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점이 두드러졌는데, 20년 전에는 선호도가 6.9%로 5위, 1998년엔 10.2%로 3위였다가 올해 15.0%로 2위로 뛰어올랐다.

아들의 직업에서 과거에 비해 운동선수가 10위권 밖으로 내려가고, 언론인이 새롭게 순위권으로 등장한 점이 눈에 띈다. 딸의 선호 직업은 아들에 비해 과거와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연예인, 언론인, 회사원 등의 직업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새롭게 은행원, 디자이너, 외교관 등의 직업이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그러면 당사자들인 자녀들의 생각은 어떨까? 며칠 전에 발표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13세~18세 청소년 102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장래희망 직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생각이나 자녀들의 생각이 거의 똑같다. 청소년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장래희망 직업은 교사(15.3%)가 1위를 차지했으며, 연예인(14.8%)이 2위, 공무원(13.8%)이 3위로 꼽혔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공무원과 교사를 선호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들 직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직업이 안정적인데다, 봉급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직업의 안정성과 보수만을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모든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에만 매달리고, 좀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직업을 외면하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비인기 직업과 창의적인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도전의식을 키워주는 다양한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실패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하겠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스티브 잡스를 공무원과 교사로 잡아두어서는 안 된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MB정부, 막판까지 영남편중 예산할 건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에도 국책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영남편중 현상이 극심, 지역민의 비난이 높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마저 대선 일정에만 몰두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 용역비 총 350억 원 중 내년 소요 국비 192억 원을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30억 원만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시가 요청한 국비 192억 원은 국가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 당시 기재부와 협의한 연차별 계획상 2013년 국비 지원액인데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했다.

반면, 경남 마산~창원~진해와 부산 사상~하단간 도시철도는 현재 기본계획 승인요청중인데도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각각 15억 원, 22억 원을 반영했다. 또 부산의 양산선(노포~북정) 도시철도는 현재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용역중인데도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해줬다.

이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신청한 내년 도시철 국비 예산 중 35%와 44%, 20%를 반영해 준 것이다. 이미 국가사업으로 승인된 광주도시철 2호선에 대해 요청액의 15%만 반영한 것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고 있음의 방증인 셈이다.

전남도의 사업도 마찬가지다. 전남도의 5GW 풍력발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2.5GW급보다 규모가 클 정도로 관심사였지만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 선정에서 탈락했다.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사업비와 F1대회 사업비도 정부 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예산심의 때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되풀이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MB정권 말기 국비예산 '영남 퍼주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연말 대선에만 올인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자체·지역정치권의 현안 해결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부끄러운 광주 자살 증가율 1위 언제까지

광주에서 최근 3년 사이 자살 사망자 수가 45%나 뛰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 여기에다 노인과 청소년 자살률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니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 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2010년 총 자살 사망자는 442명으로, 3년 전인 2008년(305명)에 비해 무려 44.9%나 증가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연령 표준화 사망률'도 2008년 22.1명에서 2010년에는 30.7명으로 전국 평균(28.7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2009년 58.9명에서 2010년 89.2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청소년 자살률도 2010년 10.3명으로 인천 10.6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 시도자나 고민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은 지난 6월 개소한 광주시 자살예방센터가 유일하며, 전문 의료기관은 전혀 없는 상태다. 각 자치구의 정신보건센터와 생명의 전화, 자살방지협회 지회가 부분적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자살에 대처하는 긴급구조팀과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살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큰 요인이나 가족과 사회의 적극적 배려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청소년 자살 증가가 사회에서의 부적응 및 괴리 탓이라고 볼 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자살 예방을 위해 보호· 관리와 치료 시스템도 필수다. 정신 건강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자살예방센터와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 자살에 대비한 응급출동 체계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도시 광주가 자살 증가율 1위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의료 칼럼

소리나는 무릎

오선종

최근 무릎에서 '뚝뚝' 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외래를 찾는 환자들이 많다. 특히 젊은 여성 중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큰소리가 난다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심어린 표정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같이 무릎에서 나는 소리는 관절 주변의 인대나 힘줄이 뼈와 부딪치면서 튕기는 현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 특별한 통증 및 붓기 등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하여도 무방하다.

무릎에서 소리가 날수 있는 질환은 대개 연골 연화증, 연골판 파열, 추벽 증후군을 들수가 있으며 관절염 또한 무릎 내에서 서걱서걱 무릎이 갈리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반월상(半月) 연골판 파열과 추벽증후군을 들수가 있다. 반월상 연골판이란 위쪽 무릎뼈와 아래쪽 무릎뼈 사이에 초승달 모양의 섬유성 연골로 관절 내측과 외측에 각각 위치한다. 연골판은 관절에 전해진 충격을 흡수하여 분산시키는 역할과 함께 관절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연골판이 특히 축구 등 스포츠 활동 중 무릎이 심하게 뒤틀리거나 퇴행성으로 찢어지게 되면 내측 또는 외측 관절면을 누르면 통증이 있고 무릎이 붓기도 한다. 또한 쭈그려 앉기, 양반다리 및 내리막길이나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심하다. 찢어진 연골이 무릎 사이에 끼게 되면 무언가 걸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소리도 동반되기도 한다.

연골판 손상이 의심되면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는 진단되지 않으며 MRI 촬영을 통해 확진할 수 있다. 연골판 파열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치유가 어려우며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질수록 손상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며,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빨라질 수 있다.

손상 정도에 따라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관절내시경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관절내시경 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을 통해 모니터를 보면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며 일상적인 복귀도 빠른 장점이 있다.

추벽증후군 또한 소리 나는 무릎의 원인이기도 한데, 추벽이란 무릎 내 슬개골과 대퇴연골 사이에 활액막의 얇은 띠로 대부분 퇴화되어 없어지지만 약 30%에서 선천적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추벽이 등산이나 쭈그려 앉아서 하는 집안일을 많이 함에 따라 두꺼워져 대퇴 연골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우두둑'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발생하면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적 치료는 드물며 운동을 줄이고 안정하면서 물리치료 등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치료에 효과가 없고 지속적으로 통증과 함께 부종이 보인다면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한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무릎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므로 섣불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이러한 걱정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요즘처럼 등산 및 캠핑 등 스포츠 레저활동이 유행하면서 무릎 손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신의 역량에 맞는 적절한 레저 활동이 필요하며 레저 활동 후 적절한 휴식을 통해 무릎 손상을 줄이는 게 좋을 듯하다.

〈광주21세기병원 정형외과 원장〉

기고

독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

김재흥

21세기는 창의와 감성이 주도하는 소프트 파워시대로, 상상력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창의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은 독서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독서는 단순 정서함양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가생활의 범위를 넘어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2011년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성인 독서율은 66.8%로 2010년 65.4%에 비해 약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스웨덴(87%), 네덜란드(84%), 덴마크(83%), 영국(82%), 독일(81%), 미국(81%), EU평균(71%)보다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은 모두 지독한 책벌레들이라고 한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창조적인 CEO가 되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한다.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최소 한두 번은 서점을 찾아갔고 "나를 키운 것은 8할이 독서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보통 사람의 다섯배를 읽는다는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지혜를 빌려 달라는 한 시민에게 "책을 읽고, 읽고, 또 읽으라"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미셸과 제가 오늘 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에서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교육을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내재화 시키는 데는 스스로의 독서가 중요하다. 따라서 독서는 교육의 기반이며, 더 나아가 혁신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책 읽는 문화·독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민의 행복지수 향상 및 지식경쟁력을 갖추는 유용한 방법으로 국가차원의 독서문화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독서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독서문화진흥법'은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지정하여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라는 슬로건까지 내걸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광산구에서도 도서관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독서진흥의 기반구축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건립, 책 읽는 도시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수완지구에 장덕도서관, 선운지구에 선운도서관이 건립되고 마을 곳곳에 지혜의 등대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어 지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행복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립도서관(첨단, 신가, 운남어린이도서관)에서는 나눔문화 확산과 책 읽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도서나눔 책 다모아' 행사를 추진하여 개인,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자발적인 도서기증을 유도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이용자 맞춤형 독서서비스로 문화적 욕구충족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도서관이 역동적인 자세로 지역사회 속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그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도서관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해야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으로 구민의 지적수준을 높여 문화적 삶이 향상되고 그 힘이 자아발전, 경제성장, 사회발전, 문화창달로 이어져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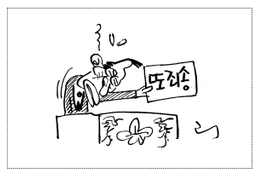
〈광산구립도서관 관장〉

無等鼓

올바른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친형과 최측근 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정권 말기에 어김없이 반복되는 지도자의 초라한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지금 올바른 지도자란 어떤 모습일까. 유가(儒家) 최고 경전인 '상서(尙書)' 대우모 편에 "정치란 백성을 잘 돌보는 데 있다(政在養民)"고 했다. 국민이 '마음 편히,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함'을 뜻한다. .



성군(聖君)의 표상(表象)인 요(堯)임금의 설화에서도 올바른 정치를 찾을 수 있다. 사기(史記) '오제본기편(五帝本紀扁)'에 요임금이 거리에 나서 어린아이들이 부른 입아증민(立我烝民·우리가 이처럼 잘 살아가는 것은), 막비이극(莫匪爾極·모두가 임금님의 지극한 덕이네), 불식부지(不識不知·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순제지측(順帝之則·임금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네)라는 노랫소리에 자신이 정치를 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 마을 끝에서 한 노인이 손으로 '배를 두드리고 발로 땅을 구르며 흥겹게 부르는 노래에 자신이 정치를 잘 하고 있음을 자인했다. 노인이 부른 '격양가(擊壤歌)에는 일출이작 일입이식(日出而作 日入而息·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네.), 경전이식 착정이음(耕田而食 鑿井而飮·밭을 갈아 먹고 우물을 파서 마시니), 함포고복 고복격양(含哺鼓腹,鼓腹擊壤·내가 배부르고 즐거운데), 제력하유우아재(帝力何有于我哉·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요임금은 백성들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고 먹고 쉬는, 이른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바랐는데 그것이 실현되고 있어서 만족했다.

노자(老子)도 이런 정치를 '무위(無爲)의 치(治·다스림)'라고 했으며 정치론의 근본으로 삼았다. 5개월여 후 우리도 지배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정치를 잘하는 지배자를 통치자로 둘 수 있을까?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중국서 비롯된 대기이상 피해, 정부가 외교대응 나서야

얼마 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한반도에서 세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우리나라도 OECD국가 중에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율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 이런 보도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고, 반성을 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한반도에서 최고수준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산화탄소를 무섭게 배출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불어온 공기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은 충남 태안반도라고 한다. 서풍이 불 때마다 공기를 채집해 이산화탄소와 같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1년간 이곳에서 공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상승세도 제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온실가스와는 별개로 봄철 황사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고비사막쪽에서 해마다 봄철에 불어오는 황사 먼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입는 손실은 수천억 원어치가 넘는다고 한다.

먼지로 인해 농작물의 일조량을 줄이는 기본적인 일부터,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병충해 유입, 국민들의 호흡기질환 유발, 고성능 반도체제품의 불량 등이다.

그런데 이 황사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실가스까지 세계 최고치를 기록하도록 이산화탄소가 국경을 타고 넘어와 우리 대기를 오염시킨다니 경악할 노릇이다. 이런 현상은 기존에 우리나라의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그런 기후변화, 이상기후, 이변적인 기상현상을 유발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중국에 명백하게 알리고 그쪽에서 책임지거나 보상이 필요한 부분,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외교적으로 얻을 게 있다면 얻어내야 할 것이다.

국경을 타고 넘어오는 대기의 문제를 그냥 자연현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말 일은 아니라고 본다. 원인제공 측에서 일정부분 외교적인 책임을 지고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태웅·광주시 서구 서창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